



“정보 유출 막자”
유통업계
보안투자 총력
L1



Life

HLB
리보세라닙
美진출 또 좌설
L2



“AI, 성장 판도 바뀌… 반도체가 한국경제 견인” “어렵고 복잡한 연금관리, AI로 ‘초개인화’”

100세 플러스 포럼 시즌2 강연

황 승택 하나증권 리서치센터장

AI·데이터센터 등 국내 반도체산업 성장 지속
코스피 변동성 확대… 장기 상단은 높아질 것

“인공지능(AI)은 단순한 기술 혁신을 넘어 미국과 한국 경제의 성장 구조를 바꾸고 있다. 한국 역시 반도체 산업을 중심으로 성장 모멘텀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

황승택 하나증권 리서치센터장은 9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컨퍼런스홀에서 열린 메트로신문 ‘2026 100세 플러스 포럼 시즌2’에서 ‘2026년 하반기 글로벌 금융시장 전망’을 주제로 강연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미국 경제는 고소득층 소비와 AI 투자가 성장세를 지탱하고 있으며, 한국은 반도체 수출과 설비투자가 경기 회복의 핵심 축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황 센터장은 미국 경기 둔화 우려에도 소비 기반은 예상보다 견조하다고 평가했다. 특히 올해 미국 경제 성장에서 AI 투자의 기여도가 2000년 닷컴버블 당시 정보기술(IT) 투자보다 높은 수준이라고 분석하며, AI가 새로운 성장 사이클을 이끌고 있다고 평가했다.

AI가 곧바로 물가 안정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시각에는 선을 그었다. 그는 케빈 워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이 AI를 구조적인 디스인플레이션 요인으로 평가한 점을 소개하면서도 “생산성 향상이 수요 증가를 앞지르면 물가 안정 효과가 나타날 수 있지만, AI에 대한 기대가 투자와 소비를 먼저 자극



할 경우 오히려 인플레이션 압력이 커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판단을 토대로 황 센터장은 연준이 올해 말 기준금리를 한 차례 추가 인상할 가능성을 제시했다.

한국 경제는 반도체 산업이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내다봤다. AI 서비스 확산과 데이터센터 투자 확대에 따라 HBM과 범용 D램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공급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 반도체 수출 호조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그는 “반도체 제조장비 투자 확대가 설비투자로 이어지면서 수출과 투자가 동시에 성장하는 구조가 나타날 것”이라며 “예상보다 강한 수출 모멘텀과 무역수지 흑자를 감안하면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은 3.3% 수준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주식시장에 대해서는 높은 기대만큼 변동성도 커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최근 코스피의 예상 영업이익의 증가율이 급등하면서 기대감이 높아졌지만 실적이 예상에 미치지 못하거나 증가율이 정점을 통과할 것이라는 우려도 함께 커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기업 이익 전망이 개선되고 있는 만큼 코스피의 장기 상단은 기존보다 높아질 수 있다고 봤다.

황 센터장은 “AI는 특정 산업의 변화가 아니라 글로벌 경제와 금융시장의 구조를 바꾸는 핵심 변수”라며 “미국의 AI 투자 확대와 한국 반도체 경쟁력이 맞물리는 흐름 속에서 단기적인 시장 변동성보다 장기적인 성장 방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허정윤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강연

조명훈 한국투자증권 연금컨설팅부서장

진단부터 자산배분까지… AI 연금관리 진화
리스크 관리·장기투자 등 기본원칙은 불변

“인공지능(AI)이 연금 자산관리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다. AI가 가장 크게 가져올 변화는 어렵고 복잡한 연금관리를 고객의 상황에 맞춘 초개인화 관리로 바꾸는 것이다.”

조명훈 한국투자증권 연금혁신본부 연금컨설팅부서장은 9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컨퍼런스홀에서 열린 메트로신문 ‘2026 100세 플러스 포럼 시즌2’에서 ‘AI를 활용한 초개인화 연금 자산관리’를 주제로 강연하며 이같이 밝혔다.

조 부서장은 연금이 일반 금융상품과 달리 10~30년에 걸쳐 운용되는 장기자산이지만 현실에서는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연금은 상품이 아니라 제도이기 때문이다”라며 “퇴직연금과 개인형퇴직연금(IRP), 세액공제, 디폴트옵션 등 가입자가 알아야 할 내용이 많아 관리가 어려운 구조”라고 설명했다. 변동성이 높은 시장에서는 매수·매도 타이밍을 판단하기 더욱 어렵다고 짚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투자증권은 AI를 활용한 연금관리 체계를 준비하고 있다며 ‘AI 연금 은보딩 3대 핵심 솔루션’을 소개했다. ▲초개인화 진단 및 은보딩 ▲스마트 자산배분 및 운용 ▲정기 맞춤형 큐레이션 등 AI가 연금관리에서 하게 될 역할을 제시했다.

특히 ‘연금 주치의’ 역할을 하는 정기 맞춤형 큐레



이션을 강조했다. 조 부서장은 “처음에는 연금에 관심을 갖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관리가 끊기는 경우가 많다”며 “AI가 정기적으로 포트폴리오를 점검하고 리밸런싱 알림과 위험 경고를 제공해 꾸준한 관리 습관을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향후 여러 연금상품을 하나의 포트폴리오로 제안하고 원클릭으로 변경할 수 있는 기능도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 부서장은 “AI에 의한 연금관리 생태계의 핵심은 기술 자체가 아니라 기술을 통해 고객 경험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에 있다”라며 “초개인화된 AI 연금관리 서비스를 바탕으로 연금사업자의 자산관리 경쟁력도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AI가 발전하더라도 연금관리의 기본 원칙은 변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철저한 리스크 관리 ▲저비용 인덱스 중심의 장기투자 ▲연금사업자의 수탁자 책임을 세 가지 핵심 원칙으로 제시했다. 궁극적으로는 이러한 AI 기반 연금관리 체계가 자리 잡으면 고객의 연금관리 편의성이 높아지고 장기적인 자산 성과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조 부서장은 “AI는 시장 데이터를 빠르게 분석할 수 있지만 고객의 최종 의사결정과 연금사업자의 윤리적 수탁자 책임까지 기술에 위임할 수는 없다”며 “AI는 도구이고 연금은 제도이며 관리는 습관이다. 이 세 가지가 결합할 때 연금은 방치된 자산이 아니라 100세 시대를 지탱하는 핵심 자산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하은 기자 godhe@

“부동산 금리인상 변수… 아파트 공급부족 우려” “온체인 금융 현실로… 美시장 인프라 이동 시작”

강연

정재훈 단국대 도시계획부동산학부 조교수

부동산 시장 핵심변수는 금리, 인플레이션
전세 감소·월세 급등에 임차시장 불안 심화

“2023년부터 줄곧 ‘부동산을 사라’고 했지만 지금은 쉽게 그렇게 말하기 조심스럽다.”

정재훈 단국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부 조교수는 9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컨퍼런스홀에서 열린 메트로신문 ‘2026 100세 플러스 포럼 시즌2’에서 ‘AI 시대의 부동산 자산관리: 시장 진단부터 미래 투자 전략까지’를 주제로 강연하며 향후 부동산 시장의 핵심 변수로 금리와 인플레이션을 꼽았다. 장기적으로는 공급 부족과 인플레이션으로 집값 상승 압력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지만, 단기적으로는 기준금리 인상 속도가 최대 변수라는 분석이다. 특히 집값보다 전세 물량 감소와 월세 급등이 더 큰 문제라며 공급 확대 없이는 임차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정 조교수는 “금리를 얼마만큼 급격하게 올릴지가 아파트 가격에 영향을 줄 것”이라며 75 bp(1bp=0.01%포인트) 정도는 감내 가능한 수준일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내다봤다.

그는 정부의 규제를 피해 수요가 인접 지역으로 이동하는 ‘풍선효과’도 반복되고 있다고 짚었다.

특히 다주택자 규제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전세시장 불안을 키웠다고 진단했다. 그는 “다주택자를 억제하는 정책 속에서 전세를 시장에 내놓을 사람이 없어졌다”며 “민간이 임차시장의 80%를 차지하고 있고, 공공은 20%에 불과하다. 80%의 물량



이 없어지면서 임차시장에 제 역할을 해내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결국 실수요자들은 높은 월세를 감당하거나 매매시장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전세는 계속 사라지고 월세는 계속 오를 것”이라며 “전세가 사라지면 월세는 전세가격이 아니라 매매가격을 기준으로 형성될 수밖에 없고, 서울 주요 입지의 월세는 지금보다 2~3배까지 오를 수 있다”고 내다봤다.

결국 장기적으로 공급 부족이 이어지는 만큼 상승 압력이 우세할 것으로 봤다. 정 조교수는 “반도체 쇼티지(공급 부족)처럼 아파트도 쇼티지”라며 “아파트 공급 부족이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무조건 오를 것 같다”고 말했다. 이미 서울 아파트 시장은 전고점을 넘어섰고, 성동구와 송파구는 전고점 대비 30% 이상 높은 수준까지 올라 다른 지역보다 상승 폭이 두드러졌다고 설명했다.

해결 방법은 결국 수요에 걸맞은 공급이라고 평가했다. 이미 사회적으로 요구하는 삶의 질의 수준이 높아졌고, 가장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주거 유형이 아파트라면 아파트 공급을 더욱 적극적으로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정 조교수는 “공급 앞에 장사가 없다”며 “좋은 아파트들이 계속 나오면 아파트 가격이 지금처럼 그렇게 비쌀 이유는 없고, 아파트 공급을 더 늘렸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그는 “민간이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금융 측면에서 지원해주자 공급이 늘어난다”며 “손발을 묶어놓고 공급을 하겠다고 하니 민간 공급이 이뤄지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신하은 기자

강연

김민승 코빗 리서치센터장

미국, 블록체인 전환 추진… 토론회 개발 활발
한국, 제도 논의 정체… 글로벌 대응 시급해

“앞으로는 어떤 자산을 살지가 아니라 금융시장의 ‘판’이 바뀐다. 미국은 이미 금융시장 인프라를 블록체인으로 옮기기 시작했다.”

김민승 코빗 리서치센터장은 ‘2026 100세플러스 포럼 시즌2’에서 ‘온체인 금융이 온다-이미 시작된 미국 금융시장 인프라의 이전’을 주제로 강연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비트코인 가격이나 특정 코인에 투자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금융이 작동하는 방식 자체가 바뀌고 있다는 점을 눈여겨 봐야 한다”며 “온체인 금융은 미래의 개념이 아니라 미국을 중심으로 이미 현실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센터장은 비트코인을 둘러싼 시장 환경이 과거와 완전히 달라졌다고 진단했다. 그는 “과거에는 반감기라는 비트코인 내부 이벤트가 가격을 움직였다면 지금은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와 기관투자자 자금, 금리와 달러, 국가 정책 같은 거시경제 변수들이 가격을 결정한다”며 “가격을 움직이는 힘이 코인 안에서 코인 밖으로 이동했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러한 변화의 핵심 키워드로 ‘온체인 금융(On-chain Finance)’을 제시했다. 온체인 금융은 블록체인 위에서 자산을 토큰 형태로 저장하고 거래하는 금융 시스템이다. 그는 “주식과 채권, 국채, 금, 달러 같은 현실의 자산도 블록체인 위에서 토큰으로 발행·거래되는 시대가 열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센터장은 “2017년에도 비슷한 시도가 있었지만 당시에는 기술이 미성숙했고 미국 규제가 시장 성장을 가로막았다”며 “지금은 기술과 제도, 시장 규모가 모두 갖춰져 본격적인 온체인 금융 시대를 맞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그는 최근 미국의 움직임이 단순한 규제 완화가 아닌 ‘금융시장 온체인화’로 해석했다. 거래와 청산, 결제, 보관 등 금융시장 인프라 전체를 블록체인 기반으로 전환하는 작업이 진행 중이라는 것이다. 그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디지털자산과 토큰화 증권 제도화를 추진하고 있고, 미국 증권예탁결제기관(DTCC)도 토큰화 증권 파일럿을 시작한다”며 “비전 수준이 아니라 실제 운영 단계로 넘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민간의 변화도 빨라지고 있다. 바이낸스와 크라켄 등 가상자산 거래소는 토큰화 주식을 출시하고, 코인베이스도 관련 서비스를 준비 중이다. 반대로 나스닥과 뉴욕증권거래소는 24시간 거래 체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김 센터장은 “크립토는 주식으로 들어오고 전통 금융은 가상자산 시장의 속도를 따라가면서 양쪽의 경계가 빠르게 허물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김 센터장은 “미국은 정부와 민간이 함께 금융시장을 온체인으로 이전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한국은 아직 제도 논의 단계에 머물러 있다”며 “원화 스테이블코인과 자산 토큰화 등 새로운 금융 인프라에 보다 빠르게 대응해야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허정윤 기자